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49)(4/1/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33 장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럽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아야 함, 1-2 절

요 14:2 -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요 12:9 -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마 6:22 -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1. <그리스도> 아들이, 감정이나 기분을 믿지 말라. 그런 것들은 금세 다른 것들로 변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네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너의 감정이나 기분은 변하게 되어 있다(요 14:2). 그래서 기뻐다가도 금방 슬퍼지고, 평화롭다가도 금방 불안해지고, 경건하게 행하다가도 금방 불경건하게 행하게 되고, 부지런했다가도 게을러지고, 마음이 무거웠다가도 금방 가벼워진다. 하지만 지혜롭고 영적으로 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그러한 변화들을 초월해 있어서, 자기 자신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나, 변덕의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주목하지 않고, 원래 자신이 늘 바라 보아야 할 최고의 목표에 자신의 온 마음과 뜻을 집중시킨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요동함이 없이 일편단심으로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까닭에, 온갖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와중에서도, 그 마음이 나누어지거나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마음의 눈이 순전하면 할수록, 갖가지 폭풍우들을 흔들림 없고 변함없이 헤쳐 나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자신에게 쾌락을 주는 것들로 재빨리 마음의 눈을 돌려서, 거기에 자신의 마음을 주어 버리기 때문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 예로, 옛적의 유대인이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간 것은 순전히 예수님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보기 위한 것이었다(요 12:9). 그러므로 너는 마음의 눈을 정결하게 하여서(마 6:22), 네가 가는 길에서 어떤 일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오로지 일편단심으로 순전하고 올바르게 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말씀과 해설:

성경은 마음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들을 담고 있다. 최악된 인간은 마음이 병들고 말았다. 창 6:5 - 여호와께서 사람의 최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렘 17:9 -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마음이 타락한 인간은 생각을 통해서도 죄를 짓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의지할 수가 없다.

우리가 나 자신의 마음이 부패했음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성경은 마음의 정결을 간구하고 추구하라고 가르친다. 신 10:16 -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렘 4:4 -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 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주님과 친구가 된다. 잠 22:11 -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 **마 5:8 -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음 관리, 마음의 정결의 유지는 영적 승리의 비결이 된다.

죄성이 있는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바뀌는 속성이 있다. 인간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믿을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너무나도 변덕이 심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계속 변함으로 믿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낸다. **민 23:19 -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삼상 15:29 -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인간은 쉽게 변하는 존재라는 깨달음은 나 자신을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 특히 나의 마음과 생각에 의지하면 안된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많은 이들이 순간의 생각, 지금 이 순간의 기분과 감정에 의존하여 판단하고 결정하고 일을 추진할 때가 많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바로 판단의 기준이다. 성도는 이 세상 그 어떤 것, 심지어 나 자신의 생각, 기분, 감정도 내려 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물론 세상의 소식들을 듣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특히 나 자신의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감정은 솟았다가도 사라지는 법이다. 그러므로 감정에 이끌릴 경우 잘못된 결정을 하기가 쉽다. 고난의 시기, 힘든 일이 있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운 때일 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그럴 때일수록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강한 절제력으로 자신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께 더욱 집중해야 한다.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요동치며 감정적 동요가 있을 때, 그 때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 놓고 극복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할 때이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인내심이 회복되고, 생각이 정리되며, 평정을 되찾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빌 2:5 -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의 특징 중의 하나는 그들의 삶의 여정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시했다는 것이다. 흔들릴 때, 요동칠 때, 방황할 때, 그 때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이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쉽게 변하고 흔들리기 쉬운 마음 중심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2.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아시아 지역 선교사님들(캄보디아 박훈용, 비에트남 우석정, 인도네시아 이기쁨, 카자흐스탄 이드림)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고, 성령의 권능의 역사 가운데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3. 삶의 고난 속에 힘들어 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기업에 응답과 치유와 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